

오피니언

월/요/광/장

정준모



월드컵이 한창이다. 2002년의 쾌거를 이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오늘도 잠을 설쳐가며 TV앞에 앉는 이유일 것이다.

하면서 한국이라는 이미지는 다층적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80년대 까지만 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은 불고기였다.

한국의 국가이미지는 비빔밥?

면 잡채가 꼽혔다. 그러나 불고기는 우리가 감지해 홍보하는 사이 일본의 야끼니꾸로 변했고 이제 파리사람들은 불고기가 아닌 야끼니꾸를 즐긴다.

고된 탓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은 홍보 전술의 미숙함도 원인이지만 일관되지 한국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킬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국가 이미지 창출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불구하고 각각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홍보함으로써 너무 많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세계인들 즉 타자들은 우리를 하나의 이미지로 조합할 수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를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로, 정보통신부는 IT강국이라 불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나 전남하면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타자의 눈에 비친 호남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이 일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지자체가 고민해야 할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과제인 동시에 시장, 지사의 정체성에 속하는 일이다.

<미술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서민경제 올인'보단 중산층 살리기가 해법

열린우리당 김근태 신임의장이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서민경제"라며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올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김근태의장과 여당내 상당수 세력이 경제회복 정책 기조로 '서민층'을 중시하는 것에 대해 이같은 방향이 또 하나의 포퓰리즘에 그치는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정책으로 이들을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빈곤층을 위해 벌여온 정책들은 주로

기업등 상위 20%의 계층에 부과한 세금으로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월 10만원 안팎의 생계보조금을 대주는 수준이었다.

여당은 자칫 또 하나의 편가르기가 될 우려가 있는 서민경제 올인론을 내세울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수출진작, 기술투자 촉진, 건설경기 활성화등을 통한 중산층 살리기에 나서게 바람직하다.

한미 FTA 부문별 대응논리 더 다듬어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막을 내렸다. 한미 양측은 17개 분야 중 투자 등 11개 분야에서 합의사항과 쟁점을 정리한 통합 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미국측 과당공세가 심상치 않다. 금융과 서비스 분야의 경우 아예 미국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중요하다는 한국 측 입장을 제시했다"는 원론적 대응이 고작이다.

특히 미국 재계는 1차 협상에 맞춰 한 국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미국 정부와 면밀한 협조를 취하고 있다.

이번 1차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의도와 우선 순위는 어느정도 파악됐다.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다.

기고

김동화



광양만권은 경제적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동북아 불우 및 교역의 중심지로 적합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셋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되고 있는 울촌산단과 해룡산단, 황곡산단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21세기 핵심산업이면서 기술진보 및 정보 접근도가 높은 최첨단·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신속한 항공화물 수송을 필요로 한다.

여수 국제공항해야 광양만권 경쟁력있다

인천, 부산 등 3개 경제자유구역중 유일하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만이 국제공항이 없어 투자유치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부산항과 광양항 중심의 양항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여수공항을 국제공항 규모로 확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선 여수공항은 활주도가 당초 1천 550m에서 2천100m로 확장되면서 확장중인 2002년 대비 여객은 7만5천명, 화물수송은 302톤이 증가하는 등 국내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공항 규모의 확장으로 국제화물 취급과 관련된 화물 선주들의 방문 등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천, 부산 등과 같은 여건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횡단보도서 문자메시지 보내는 행위 위험천만

휴대전화로 이용,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전화 통화 하는 것 만큼 많아졌다. 엄지족이라는 말이 생겨나는가 하면 문자메시지 빨리 보내기 대회까지 있을 정도다.

데에서 문자 메시지를치고 있는 것을 봤다. 이 여학생은 신호 대기중이던 차들이 경적을 울린 뒤에야 부랴부랴 횡단보도를 건너 갔다.

이 때문인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황을 가끔 본다.

부터대고 신호만 본 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관청에·순신시 가족들

기고

박도재



많은 관심과 화제를 낳았던 5·31 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 주변을 살펴봐야 한다.

얼마전 보성군 예당의 국도변 감자밭을 다녀왔다. 재배 많은 인원이 감자를 캐고 또 한쪽에서는 선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선거가 진행되었으니 농부들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 갔을까?

휴일을 맞아 인근 도시에 있는 가족 사촌들까지도 모두 비싼 인력을 대신해 감자 수확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농촌일손돕기 적극 나서자

가 '하늘에 별 따기'였으며 또한 돈을 주고도 사람을 데려올 수 없었다고 한다.

한 교류활동을 보여주었고 있다. 다만 이런 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해보다 1만원 이상 올랐어도 일꾼이 오지 않았으니 그 날 손놓고 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린 농가가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농촌인구 감소, 노령화, 한·미 FTA 등 산적한 농촌문제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면 좀 나아질 것이라 여겨졌던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제 선거에 가졌던 관심을 농촌지역에 가져야 할 때다. 지금이 한 해 풍년을 좌우하는 시기이니 만큼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은 원인이 되었다.

또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농촌지역 일꾼들은 선거기간 내내 목매어 외쳤던 농촌문제를 직접 발로 뛰어 본다는 의미에서 한번쯤 농촌문제를 임기시 작전에 다녀와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 교수>

아파트값 답합행위 강력처벌, 서민들 피해 막아야

서울에서 돌쯤 있고 아파트값 좀 나간다는 동네의 부녀회에서 집값 올리기 답합행위가 여전하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 같은 여자로서 참 해도 너무할 한 사람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아파트 가격 답합 확산은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 탓도 있다. 인근 지역은 폭등하는데 가만히 앉아 손해볼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식으로 집값 올려놓고, 그게 전국으로 확산되면 우리 광주라고 별수 있을까. 텅달아 집값 오를 데고 분양가도 하늘높은줄 모르고 따라 오를게 뻔하다.

또 여기에 편승해 아파트값 올리기에 동조적으로 나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오선진·광주시 동구 서석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無等鼓

세상물정 모르는 촌놈 하나가 미국 국회에 진출했다. 그가 상원의원이란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오른 것은 순전히 '어리숙해' 보였기 때문이다.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Mr. Smith Goes To Washington)의 내용이다. '스미스'만큼 명성을 누리는 못했지만 비슷한 영화는 또 있다.

스미스와 데이브



정치인들이 재벌과 야합해 댐 건설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는데 그만 가담자 중 한 명인 상원의원이 탈락 죽어버렸다.

주인공 데이브 코빅은 평범한 직업소속 운영자. 그런데 그는 미국 대통령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특이점이 있었다.

스미스가 그들의 의도대로 걸려 들었다면 애초 얘기가 안된다. 스미스는 댐 건설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24시간 동안 의회에 버티고 서서 반대 연설을 한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데이브를 대역으로 내세우고 그를 뒤에서 조종한다.

인론은 그의 투쟁을 외면하지만 그의 친구인 어린이들은 스미스의 고군분투를 전국 방방곡곡에 소식지를 통해 알린다.

두 영화는 모두 정치와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정치와 순수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동화 속 명제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이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